



10원짜리 장사치? 난 교육사업가다

사람들은 문구사업을 '10원짜리 장사'라고 비웃었지만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구가 없으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 대표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는 '교육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좋은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박봉준 대표의 직업 철학은 삼포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시애틀비즈니스

한부모가족이라도
즐거운 나의 집

시애틀비즈니스

2018 07

Issue 135 \ July 2018
07

새로운사람의시대



울산 아너 회장 된
'문방구 아저씨'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



낡은 구두 한 켤레

이 구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40여 년을 한 가지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14살 작은 상점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만 이야기해도 모두가 알 만한

울산의 대표적인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CEO이십니다.

울산 공동모금회에 꾸준히 기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년 여름, 세 번의 방문을 통해

어렵사리 울산의 11 번째 아너 회원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여건 속에서도 늘 근검절약하시는 그분을 보며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아끼고 절약하며

틈이 나실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그분들이야말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 박용훈(대전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일러스트 이철원



목차



08



First Person

울산 아너 회장 된 '문방구 아저씨' 박봉준 대표

12



특집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8



얼굴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회장

20



화제

여름용품 지원... 시원하게 무더위 날리세요

22



포커스

똑똑한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24



착한기업

SK

30



희망스토리

다문화가정 엄마들... 낮엔 일하고 밤엔 '열공'

32



착한일터

프라지움

34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충남 부여



Cover

울산의 기부왕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는 나눔 실천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 허드렛물도 재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암문구 본점 옥상에 조성한 인공 숲에서 박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다.

38



The Page

음식을 나눠 먹으면 왜 금방 친해질까?

40



Alive CCK(Community Chest of Korea)

인천 공동모금회

44



나눔 리포트

기부 활성화 위해 뽐아야 할 전봇대들

46



나의 나눔 이야기

통기타 둘러메고 나눔콘서트...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47



모금회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5 2018 / 7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8년 7월 / 통권 135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만 3,184여 곳, 아너 소사이어티 1,772회원과 기업 28,047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553억 원 (81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빈곤 분야 지원액	기초생계 2,567억	교육·자립 925억	주거·환경 498억	질병 분야 지원액	보건·의료 607억	심리·정서 142억	소외 분야 지원액	사회적돌봄 377억	소통·참여 260억	문화격차해소 177억
---------------------	-------------	------------	------------	---------------------	------------	------------	---------------------	------------	------------	-------------

2017년 총 지원액 **5,553억**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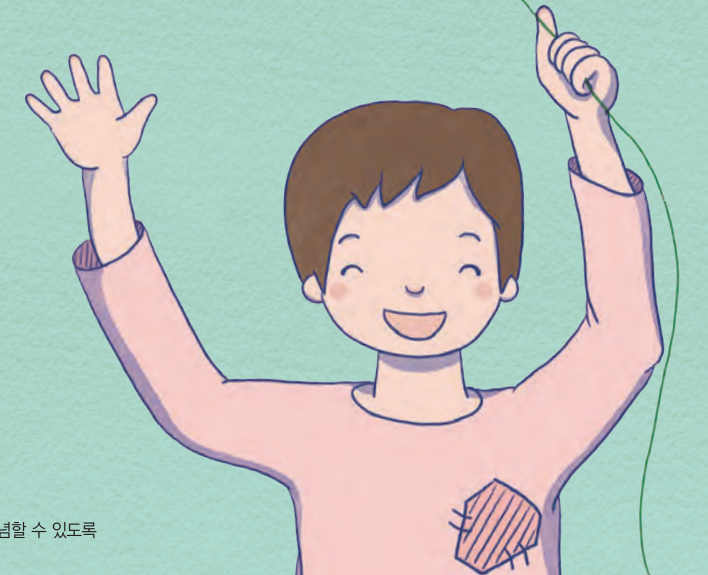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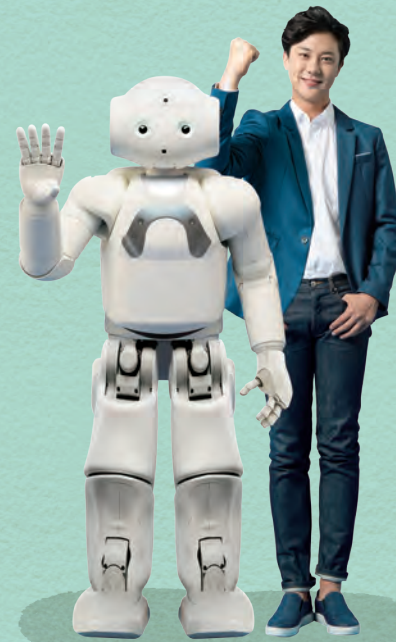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의 새로운 길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가난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굴레를 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First Person

글 한상현 사진 양수현

울산 아너 회장 된 '문방구 아저씨'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

옆집에선 굶는데 나만 배부르다고 행복할까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남의 집 머슴을 살아야 했던 소년이 있었다. 친구들의 등갓길이 부러워 먼발치서 바라만 보았던 그는 훗날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모임의 회장이 됐다. 3평 남짓 작은 문방구에서 시작해 울산을 대표하는 문구업체로 성장시킨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를 만나 그만의 나눔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구암문구 울산대점이 울산 지역 착한가게 2,800호가 됐다. 축하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박봉준 구암문구 대표(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장광수 울산 공동모금회 회장, 이연순 중앙회 사무총장

6월 15일 아침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선 울산 지역 착한가게 2,800호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인사말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구암문구 박봉준 대표는 “울산대학교에 입점한 지 25년이 됐는데 대학에서 나온 수익금은 대학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며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앞으로 울산 시민이 주신 관리비를 울산 시민에게 되돌려 드리려 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행사가 끝나고 울산시 삼산동에 있는 구암문구 본점으로 자리를 옮겨 박봉준 대표를 다시 만났다.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구점 한쪽에 마련해 놓은 쉼터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머슴 살다 잡화점 취직... 지역 '문구 사업가'로 성장

박 대표는 초등학교 졸업 후 머슴을 살다 잡화점에 취직을 했다. 그곳에서 일할 때 공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했다. 남들보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잡화점 주인 아들이냐’고 물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문방구에 취직해 점원에서 관리책임자의 자리에 올라 간 박 대표는 사장에게 체인 사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문방구를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가게를 오픈해 사업을 시작했다. 장사가 잘됐다. 그러나 1년 뒤 건물주에 의해 쫓겨났다. 있는 재산 다 그러모아 울산시청 앞에 문구점을 확장 오픈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건물주를 설득해 위기를 극복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구암문구만의 차별화된 경영방침으로 승승장구했다.

“사막에 숲을 만들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문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시민이 찾는 물건이 우리 매장에 없으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1년에 한 번 찾는 물건이라도 모두 구비해 놓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암문구에 가면 다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문구의 숲을 만들어 고객이 물건을 찾아 스스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봉준 대표는 문구 사업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다. 사양 산업이라는 문구 사업을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시킨 박 대표는 자신을 교육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남들은 ‘10원짜리 장사, 코흘리개 상대로 하는 장사’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구가 없으면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없고, 직장인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울산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11 번째 회원이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 대표는 가족 모두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구암문구 본점을 비롯해 울산 지역 5개 점포 모두 착한가게에 가입했고, 지난해엔 누님인 박정순 구암문구 범서점 대표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남매가 모두 아너가 됐다. 그는 누님을 설득할 때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업가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 축의금도 남매가 동시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 대표는 나눔에 대한 그만의 소신이 있다.

“주인은 울산 시민이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에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나’ 혼자서 잘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옆집에선 굶어 죽는데 밥 100그릇 먹고 나만 배부르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부를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한다면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잖아요.”

박 대표는 “구암문구의 주인은 울산 시민이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하늘의 별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하늘의 별은 그 별을 보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등기를 한다고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구암문구도 명의는 자신이 갖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울산 시민이기 때문에 울산 시민이 주인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단지 주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암문구를 관리하고 주인에게서 받은 관리비를 가지고 직원 급여 주고 시설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다 남는 것은 기부를 통해 다시 환원을 한다. 그는 “시민들이 준 관리비를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돈은 가지고만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물도 흘러야 깨끗하잖아요. 봄이 되면 저수지의 물을 빼서 농사를 짓는데 물을 다 써 바닥이 드러나면 봉어도 잡고 지저분한 바닥을 파내는 준설도 하죠. 그러다 장마철이 되면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기부를 하면 새 물이 차듯 다시 채워집니다.”

본점 옥상에 숲 조성… 환경 사랑도 남달라

박 대표는 울산생명숲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이다. 구암문구 시청점 3층을 단체의 사무실로 내주고 빔 프로젝트, 책상 등 집기와 비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박 대표는 “환경운동은 우리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비누도 사용하지 않는다.

구암문구 본점 옥상에는 숲이 조성되어 있다. 눈을 만들어 올챙이와 다슬기를 키우고 닭을 놓아 기른다. 구암문구 테라스에 설거지물과 빗물을 재활용한 수족관을 만들어 수중식물과 우렁이가 자랄 수 있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옥상으로 소문이 나 지역 명소가 되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박 대표의 열정이 담겨 있다.

“20년 전 옥상에 숲을 만든다고 했을 때 괜한 짓 한다고 모두 손가락질을 했죠.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기에 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마시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한함을 모르지만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연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 대표는 건물이 들어선 만큼 줄어든 녹지 그 이상의 면적을 녹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옥상과 주변에 숲을 만들었다. 옥상 문을 열자 잘 꾸며진 아름다운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빨강계 익은 보리수열매를 따서 기자에게 건넸다. 열매 3개를 모으니 영락없는 ‘사랑의열매’였다.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다는 옥상 공원에는 소나무와 동백 등 관목과 초화류가 신록을 자랑했다. 닭이 알을 낳고 시는 이곳은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았다. 구암문구의 상호는 박 대표가 직접 지었다고 한다. 구암은 언덕 구(丘)자에 바위 암(巖)자를 쓴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 뒷산에 있는 개를 닮은 바위를 떠올려 지은 이름인데, 개 구(狗)자 대신 언덕 구(丘)자를 썼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언덕 위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 박 대표는 38년을 문구 사업의 한우물만 꿸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계획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그의 마음가짐은 그대로 그의 삶이 되었다. 자연을 사랑해 환경운동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눔을 실천하는 박봉준 대표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나눔 영웅이다. ❀

사회적 편견·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꽃 피는 즐거운 나의 집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한부모가족도 이제 법적으로 당연한 가족의 한 형태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아픔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10가구 중 1가구꼴 한부모가정... 당연한 사회 일원 되게

한부모가족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81만 6,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9.6%를 차지한다. 10가구 중 1가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전통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각종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생 실패자' '낙오자' 등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갈등 등 정서적 어려움도 문제다. 이제 한부모가족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엄마와 함께 가는 멋진 세상' 프로그램

시설 입소 자녀들 "왜 우리 집은?" 정서불안
대화 단절 엄마와 소통하고 화목 솔루션 제시

중학교 3학년인 수빈(가명)이가 사는 곳은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돕는 상록모자원이다. 이곳에 입소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빈이는 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엄마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는 왜 그래. 대화가 안 돼! 나를 이해 못해'라며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수빈이는 감성적으로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이혼에서 오는 정서불안도 겪고 있었다.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일하느라 바쁜 엄마와 서로 마주앉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록모자원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수빈이처럼 정서적 교감이 이뤄지지 않는 한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인성교육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가는 멋진 세상'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3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녀와 엄마가 서로의 현재 심리 상태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 소통하는 가족으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진 상록모자원 복지사는 “자녀의 성격 유형이나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 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검사하고 분석해 대상자에 맞게 교육을 진행했더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가족예절교육·인성교육도 준비

수빈이는 가족 간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화가 단절됐던 엄마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고, 서로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게 되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한부모가족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명숙 상록모자원 원장은 “가정 해체 및 분열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 등은 자립하는 데 심리적·정서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가족의 문제가 풀리면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록모자원은 올 하반기 엄마와 함께 배우는 가족예절교육과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인성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은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간과 여건 마련이 쉽지 않다. 상록모자원은 올해 12월 가족캠프를 진행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해진 복지사는 “여행지와 숙박 및 프로그램 전반을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숙 상록모자원 원장

“엄마와 손잡고 퇴소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상록모자원에서 생활하는 한부모가정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가정불화를 겪은 분들이라 엄마도 아이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분들의 자립 의지는 강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정 경제와 육아를 엄마 혼자서 책임져야 하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의 심리상태를 모르니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엄마가 바뀌면 아이가 바뀌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설을 퇴소할 때 엄마와 아이가 손 꼭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아 내 집에서 떠나가라

에어컨 구입 부담… 가구마다 설치 지원
에너지 바우처·전기요금 감면 방안도 모색

가마솥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수박 쪼개 먹으면서 무더위를 피하는 건 누군가에게 상상 속 풍경이다. 홀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에어컨은 부담스럽다. 특히 홀로서기를 막 시작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어컨은 가전제품 구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한부모가족 생활 시설인 안동복지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건물 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가 입주할 때 가지고 와야 하지만 한부모가족 대부분 사정이 어려워 간단한 세간만 챙겨 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들이 많았다.

안동복지원에서 세 번째 여름을 맞는 7세 보람(가명)이는 한여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코피를 흘리는 특이한 증상이 있다. 한낮의 폭염이 시작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코피를 흘리고 기운이 없어 축 처진다. 선풍기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보람이는 여름 오는 것이 두렵다. 이혼 후 4세 된 호정(가명)이와 지난해 11월 안동복지원에 들어온 최소영(가명·38)씨는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호정이 가 유독 더위를 타기 때문이다. 낮에 일을 해야 하는 그녀는 밤잠 설치는 호정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막막하다.

김준호 안동복지원 사무국장은 “시설 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더위를 호소하는 가구가 많았다”며 “한여름에는 아이들을 교육장으로 불러 더위를 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동복지원의 어려운 사정을 접하고 전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했다. 안동복지원은 한부모가정의 여름철 건강을 위한 냉방기 설치 사업 ‘폭염아 내 집에서 떠나가라’를 통해 지원된 사업비로 지난 6월 초 전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김준호 사무국장은 “저소득모자가정이 입주하는 곳이라 형편이 어려워 에어컨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경북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올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에어컨 설치 후 코피 흘리는 보람이가 가장 좋아했다”고 말했다.

에어컨만 설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 걱정되는 것이 전기료다. 특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한여름 전기료가 가장 비싸다. 일반 가정에서도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할 때 누진세 폭탄을 우려해 사용시간을 조절한다. 안동복지원은 한부모가족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한전 전기요금 감면·냉난방비 지원 등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입·퇴소 한부모가족이 함께하는 공감멘토링

시설서 독립한 가정, 후배들 불러 삼겹살 파티
자신의 경험 나누며 어려움 극복 서로 도와

한부모가족이 되면 실제 피부로 체감되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부와 모는 혼자서 아이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자녀와의 여가활동 빈도가 전체 정상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堂堂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세화주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입·퇴소 한부모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함께 성장하는 공감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지역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은 한부모가족 선배들이 이제 갓 입주한 한부모가족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다. 멘토와 멘티가 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0대 후반에 이혼을 하고 세화주택에 입주해 5년 동안 생활했던 김정미(가명·54)씨는 식당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퇴소 후 논산에 작은 식당을 마련했다.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식당 영업까지 했던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세화주택에서 생활하는 후배들을 불러 삼겹살 파티도 열어주고 아이들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김정미씨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언니다. 류명순 세화주택 사무국장은 “한부모가족이 되고 시설에 입주하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퇴소 시기가 다가오면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퇴소 선배들이 멘토 역할을 잘 해주면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블링 등 여가활동도… 모자치유여행도 추진

모자가족보호시설인 세화주택은 2000년에 개원해 지금까지 84가구의 한부모가족이 이곳을 이용했다. 시설을 퇴소한 가족들은 절반 가까이 되는 41가구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세화주택은 2014년부터



매년 1~2회 퇴소자들을 시설로 초청해 세화주택에서 생활하는 후배들과의 만남을 진행해 왔다. 류명순 사무국장은 “선배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 동기부여가 된다”며 “공동모금회의 지원이 밑바탕돼 입·퇴소자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후배가 만나 함께 가방 만들기 및 블링게임을 즐기는 여가활동과 부모교육 등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와 퇴소자가 격이 없이 만나는 자조모임도 활성화하고 내년 봄엔 모자힐링여행도 함께 갈 계획이다.

노후 가스보일러 전면 교체 사업

경주애가원, 지진 이후 입주 모든 가구에 바꿔 줘
소음도 줄고 가스비도 절감… “잠자기 편해졌어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경주애가원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시설 내 전 가구의 가스보일러를 교체했다. 경주애가원은 건축한 지 15년 된 건물이라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 특히 보일러 시설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과 소음 등 문제가 있었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백향정 경주애가원 복지사는 “시설을 건축할 때 LPG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2015년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보일러 연료 교체공사를 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기존 보일러에 부품 일부만 교체해 사용했다”며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도 잦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소음이 심해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입주가구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한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기에 경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주애가원 가구들도 작은 소음이나 진동에도 밤잠을 설치야 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가구들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5세 하음(가명)이와 함께 지난해 입주한 신경미(가명·39)씨는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이곳에 입주했던 터라 불면증이 있는데 보일러 진동까지 심해 잠을 청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지진을 겪고 난 후부터 하음이는 작은 진동만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자며 조른다고 했다. 이럴 땐 난감할 수밖에 없다.

백향정 복지사는 “보일러의 소음과 진동이 컸던 이유는 장비 노후화도 원인이지만 도시가스 전용 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연소 압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며 “경북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보일러를 모두 교체해 소음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가스비가 상당히 절감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임 회장

“나눔문화의 창달과 사랑의열매 브랜드 가치 제고 위해 노력”



20세 성인이 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미래를 이끌 예종석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취임했다. 오랫동안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온 예종석 회장은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모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영학 교수 출신으로 평소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나눔 기관의 대표입니다. 참 중요한 기관이죠. 나눔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고 하더라도 잘해야 하기에 자리에 대한 중압감이 큼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영광이고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제9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취임한 예종석 회장은 비영리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예 회장은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회가 발전하고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사회에도 환원하는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눔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수치상으로는 잘사는 나라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부의 편중 현상이 있습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이나 소외된 계층은 여전히 많아요.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나눔의 기본입니다.”

“다액소수가 아닌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를”

예종석 회장은 경영과 나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이 잘되어야 기부 또한 활성화된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도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마인드는 효율성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많아야 성공하는 경영이죠. 이런 경영마인드가 비영리단체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추구하는 이익은 좀 더 많은 이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자들의 재원을 잘못 쓰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배분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지 경영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종석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때부터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기에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금문화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모금회는 연간 6,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고 있는데 모금액의 70% 가까이를 불과 3%에 해당하는 2만 7,000여 개의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채 못 미치는 금액을 82만 명의 개인기부자들이 기부하고 있어요. 비영리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공동모금회는 1,000만 명으로부터 총 모금액의 85%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풀뿌리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예 회장이 말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다액소수(多額少數)가 아닌 소액다수(少額多數)의 형태다. 예 회장은 “중산층이 두터워야 건강한 사회가 되듯 건강한 기부도 중산층의 참여가 높아야 한다”며 “스무 살 성인이 된 공동모금회가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모금 방식도 다양해져야”

예 회장은 “모금 시장도 경쟁이 심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며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모금 방식만 고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소액을 카드로 태그해 모금하는 등 IT 강국에 걸맞은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모금 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회장은 공동모금회가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브랜드회를 꼽았다. 브랜드 전문가이기도 한 예 회장의 눈으로 본 공동모금회는 소통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고 했다. 예 회장은 “제 명함 하나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커뮤니티 Chest 어브 코리아(Community Chest of Korea), 유니티드 웨이(United way) 등 4가지 명칭이 있어요. 이것은 소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의열매’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로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예종석 회장은 1953년 부산 출생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튼 캠퍼스(경제학 학사)와 인디애나대학교(경제학 석사, 경영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한양대 경영대학장 및 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소비자학회 회장과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영도유희회 이사장, 루트임팩트 이사장과 심시일밥 이사장,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적십자사 총재특보 등으로 활동했다.

에어컨·선풍기·여름이불·제습용품 무더위 시원하게 날리세요





춡고 배고프면 그렇게 서러울 수 없다. 그러나 덥고 배고파도 서럽기는 마찬가지다. 소외된 이웃에게 여름 무더위는 겨울철 추위 못지않게 힘들다. 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에 여름용품 지원

대구 공동모금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선풍기 1,000대를 지원했다. 대구 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8일 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구 내 취약계층의 폭염에 대비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풍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는 여름철 지원 사업은 타 지역보다 폭염 기간이 긴 대구의 특성에 맞게 해마다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선풍기는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대구장애인단체협의회를 통해 폭염에 노출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회정 대구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을 위기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대구 시민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나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기 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나기 용품 전달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등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총 2억 원을 들여 여름용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전달되는 용품은 여름용 이불과 쿨토시, 모기약, 제습용품, 가공육제품, 국수, 라면, 비타민, 즉석밥, 참치캔, 장조림캔 등 11개 물품이다. 이번 여름용품 지원 사업은 7월

-  **대구**
 선풍기 1,000대 전달... 5년째 시행
-  **경기**
 10개 지역에 2억 상당 여름용품
-  **세종**
 5,000만 원 들여 '7월의 산타'
-  **경남**
 시원한 물김치와 여름용품 지원



인천 공동모금회, 소규모 복지기관 111개소에 냉방비 지원

소규모 사회복지기관들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여름철 냉방기 사용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한다.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소외된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기관을 찾아온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해야 할에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30일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111개 소규모 복지기관에 여름철 냉방비 4,9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냉방비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사용할 전기요금으로 사용한다.

3일부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과천시, 포천시의 해당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 공동모금회는 무더위에 지친 저소득 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7월의 산타'를 진행한다. 세종 공동모금회는 지역 주민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정에 여름용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종 공동모금회는 6월 12일 세종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컨소시엄 MOU 협약식'을 가졌다.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되는 이번 여름나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 다문화 여성 및 가족, 저소득층 등 다양한 분야의 해당 복지기관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시민들이 소중하게 모아주신 성금을 관내 저소득 계층에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지원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수행기관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공동모금회는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지정기탁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영양섭취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물김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가구와 아동센터, 보육시설 등을 찾아가 시원한 물김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22일 지역의 소외계층 90가구와 거제 지역 지역아동센터 10곳, 보육시설 4곳, 장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열무물김치와 라면 90박스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경남 공동모금회는 지역 기업인 현대로템과 함께 창원시·거창군 내 조손 및 한부모가족, 홀어르신 등 저소득가정 100가구에 1,000만 원 상당의 여름용품을 전달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은 현대로템 임직원들의 급여나눔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여름용품을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나눔은 현대로템 직원들이 직접 물품을 배송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김용희 경남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3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현대로템 임직원들의 기부와 봉사활동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많은 귀감이 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나눔문화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경남 공동모금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1 대구 공동모금회의 선풍기 지원사업 2 경남 공동모금회 통해 여름용품 전달한 현대로템 3 여름나기 지원 컨소시엄 협약 체결한 세종 공동모금회

기부자 원하는 곳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딱딱한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

새로운 기부문화인 초고액기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기부금을 공동모금회가 직접 관리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기금운영 방법이다. 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에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

별도 재단 설립 없이 공동모금회가 총체적 관리

선한 영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 또 다른 나눔이 만들어진다. 배달의민족 창업주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지난 3월 8일 개인기부 최고액인 50억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그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DAF·Donor Advised Fund)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나서자 뜻을 함께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병철 중간계 캠퍼스(배달의민족 최고자문위원) 대표는 김봉진 대표의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김상현 전(前) 네이버 대표이사와 노소라 변호사도 3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기부가 더해져 큰 기부가 만들어지고 있다. 김 대표의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운영위원회’가 마련되어 지원 관련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신병철 대표가 기부한 1억 원과 김상현, 노소라 부부의 기부금 3억 원이 더해져 마련된 총 54억 원의 기금은 5년에 걸쳐 다양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봉진 대표의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은 공동모금회가 처음 시도하는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의 한 형태로 공동모금회가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부자의 조언에 따라 지원사업을 펼치는 원금소진형 기금운영 방법이다. 기존 기부자조언기금은 공익재단에 기부된 성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과 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해 왔다.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에 기부한 신병철 대표(오른쪽)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왼쪽 첫 번째)와 나눔의 뜻을 같이하고자 3억 원을 기부한 김상현·노소라 부부(가운데)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이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을 관리하면서 기부자의 조언에 따라 지원사업을 펼치는 원금소진형 기금운영 방법을 말한다. 공익재단에 기부된 성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과 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해 온 기존 방식과 달리 재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공동모금회가 재원을 관리해 안전성이 높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은 재단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도 없고 기부자가 기부금 운영과 배분에 대해 직접 조언할 수 있어 재단 설립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는 재단을 설립하는 비용이나 운영비를 아낄 수 있어 보다 많은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원의 안전성이 높고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봉진 대표 50억 스타트… 아이스 버킷처럼 확산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향후 3년간 개인지분을 처분해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해 이 중 절반을 저소득층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김 대표는 재단 설립을 준비했으나 재단운영 비용을 줄여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공동모금회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봉진 대표는 기부금 약정식에서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기쁨은 그 어떤 성취보다 기쁘다”며 “우리 사회 성공의 선순환을 위해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김 대표의 취지에 뜻을 같이해 기부에 동참한 신병철 대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과 부를 나눔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을 전달한 김상현 전 네이버 대표이사는 “김봉진 대표의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 사업을 듣고 그의 큰 결심에 감탄했다”며 “그런 좋은 뜻을 응원하며 함께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기부에 참여한 노소라 변호사는 “김봉진 대표의 선행을 전해 듣고 당연히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좋은 일에 남편과 함께하게 되어 그 기쁨이 두 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소중한 성금이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에 기부됨으로써 한국형 기부자조언기금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병철 대표와 김상현, 노소라 부부 아너게서 좋은 뜻에 동참하시며 나눔 릴레이가 이어져 이 자리가 더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봉진 대표의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 기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및 정서 지원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



이웃·사회적 기업에 행복을 나눠 드립니다

SK 경영의 바탕이 되는 인간중심주의의 '행복경영'은 이들의 사회공헌활동의 근간이기도 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행복 추구 그리고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해 내고 있다. SK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펼쳐고 있는 혁신적인 날갯짓을 만나본다.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

SK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이다. 1953년 선경직물 창립 이후 1970~1980년대에는 석유와 화학 분야로,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과 물류, 금융 분야로 또 2000년대 이후로는 에너지와 반도체, 바이오, 제약 등의 분야로 시대에 앞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뤄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에 힘써온 기업으로 손꼽힌다.

SK가 펼쳐고 있는 사회공헌활동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경영철학인 '행복경영'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반세기 동안 펼쳐온 SK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소외된 이웃부터 사회적 기업까지 모두의 웃음과 행복이 오롯이 녹아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 가치 창출한 기업에 금전보상 매출 8% 늘고 사회성과 지수는 31% 상승

사회적 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과 함께 '고생 길'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제품이 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물질적 보상이 약해 도전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주도 아래 사회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기업들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된 뒤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에 동기부여가 돼 더 많은 사회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가 마련되고,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서울 성수동 소재 사회적 벤처기업 '동구밭'(대표 노순호)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구밭은 2016년 SPC 지원을 계기로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가꿈비누'라는 천연비누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성과가 더 많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업종 확장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그 결과 동구밭은 사업 규모를 키워 현재 발달장애인 15명을 포함, 24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태원 SK 회장 "사회적 가치로 당당히 돈 벌 수 있게"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가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사회적 기업은 총 44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인센티브로 인해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8%, 사회성과 증가율은 31%에 달한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 증가와 같은 외형적 성장은 물론 그 이상의 사회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SK는 SPC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업체들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주기를 바라서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사회적 기업에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경영 함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기업 대표들에게 "사회적 가치로 당당하게 돈 벌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통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SK의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17년 12월 SK가 펀드 설정 및 첫 투자자로 참여한 펀드이자, 국내 최초의 민간자본으로만 구성된 사회적 기업 전용 펀드인 '사회적 기업 전문사모 투자신탁 1호'가 탄생했다. 펀드를 통해 투자수익을 얻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기업과 NGO,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SK는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개설로 100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도시락 결식아동 zero 프로젝트

전국 28개 센터서 하루 1만 4,000개 도시락
집밥처럼 영양에도 신경... 주위 눈치도 안 보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준다.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 식사는 평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과 위생적인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SK 행복나눔재단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행복도시락 결식아동 제로(zero) 프로젝트를 통해 엄마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영양이 풍부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행복도시락은 SK 그룹 사회공헌 재단인 SK 행복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결식아웃에게 우수한 도시락을 공급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SK기업의 초기 시설 및 자립 지원, 정부의 인건비 지원, NGO의 운영과 지자체의 아동과 노인급식 사업 위탁을 통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28개 행복도시락 센터를 통해 매일 1만 4,000여 개의 도시락형 공공급식을 공급,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월 오픈한 북부플러스센터 설립 비용 지원

SK 행복나눔재단은 결식아동 zero 프로젝트를 위해 2018년 3월에 개소한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비를 지원했다. 이 시설은 중부플러스센터와 서부플러스센터에 이은 세 번째 특화 시설로 일반 지점보다 생산 규모와 제조 경쟁력, 사회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강화된 시설을 통해 지역 내 매일 1만여 개의 도시락 공급이 가능해졌다.

행복도시락 북부플러스센터는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와 MOU를 맺은 '집밥 프로젝트'를 현실화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제도로 운영되던 전자카드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과 소외계층에 대한 시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도시락 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경우 고른 영양 섭취로 신체 건강이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부담도 덜어 정서적 만족도도 높았다. 북부플러스센터는 서울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결식아동에게 영양사가 개발한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메뉴로 만든 도시락형 공공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아동급식제도 문제점의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SK 그룹사의 임직원들은 매년 모은 3억 원대의 후원금으로 전국의 행복도시락 시설을 통해 방학 동안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결식아웃 사각지대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2만 873명의 아이에게 61만 8,360개의 도시락이 전달되었다.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사업

일회성이 아닌 천식 환우 완치 목표로
월 25만 원 이내 치료비와 약재비 지원

SK E&S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 환경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총 3억 원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24명의 아동에 이어 올해는 33명을 추가로 선발해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소아천식은 기침이 심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발작이나 호흡 곤란으로 인한 응급 상황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질환이다. 잦은 재발과 급속한 증상 악화로 학업 곤란이나 활동 제한 등 아이들의 삶의 질까지 저하된다. 발생 초기 치료와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발병

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데다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소아천식 환자의 20~30%는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폐 기능 손상 및 알레르기 질환 유발 등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은 이러한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천식 환자나 의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0~100% 이내 가구에 해당되는 신청자 중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선발해 다양한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

침구·진공청소기 교체에 주거환경 개선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은 선발된 아이들의 소아천식 완치가 목표다. 때문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완치, 만 18세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가장 큰 혜택으로 손꼽히는 것은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 등에서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 지원이다. 연간 한도액 300만 원(25만 원×12개월) 이내에서 지원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증상이 심한 아이들 중 일부를 선발해 아이의 주 생활공간인 집 안에서의 증세 악화 요인은 없는지 생활환경 개선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집 안의 미세먼지와 곰팡이 같은 유해 환경을 진단한 후 먼지 발생의 근원이 되는 침구, 진공청소기 등의 제품은 미세먼지 발생이 덜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또한 정리와 청소를 통해 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증상 치료를 위해 원인을 제거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증상 완화는 물론 유발 요인까지 제거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와 공기 청정기, 미세먼지 간이 농도측정기를 제공해 소아천식의 완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T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

장애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
직접 만든 레이싱카와 드론으로 출전

“드론으로 촬영한 세상을 보신 적 있으
세요? 저는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난 5월 9~10일에 열린 2018 SKT 장
애청소년ICT 메이커톤 대회장. 대회 20
주년을 맞아 시범적으로 열린 드론 대회
에 참가한 김동현 학생(대구영화학교)
의 눈이 반짝였다.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았지만, 드론을 직접 조립하고 코딩해서 조종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 과정을 통
해 실력이 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 구체화됐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당당히 밝혔다. 청각장애
가 있는 동현이는 이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SKT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는 SK텔레콤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하고 관련 정부 기
관들과 사랑의열매가 후원하는 행사다.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 장애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개월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되었다. 전국 지
역별, 장애유형별 통합적으로 장애청소년이 참가하는 대회로는 이 대회가 유일하다.

2018 SKT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는 특수학교(급) 중고등학부에 재학 중인 14~24세 장애청소년과 교
사 총 125명이 참가해 3월부터 팀을 이뤄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아이들이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기를 직접 만들어(Make) 그 결과물로 마라톤(Marathon)처럼 이어서 경연하
는 것이 행사의 내용이다.

결과를 떠나 도전 정신 통해 자신감 가져

이번 대회는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빠른 시간 안에 스마트카를 조립하는 ‘메이킹 올림픽’을 시작으로
만든 스마트카를 활용해 장애물을 통과하며 트랙을 완주하는 ‘레이싱 올림픽’과 상대편 필드로 블록을 밀어내는
‘푸싱 올림픽’ 등의 프로그램이 연이어 펼쳐졌다. 집중을 요구하는 정교한 조립부터 스피드와 순발력, 전략과 팀
워크로 얻어낸 결과들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스마트카를 멋지게 꾸민 ‘디자인 올림픽’에서는 학생들의 특목 튀는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반도 민족을 상
징하는 꽃들로 장식한 통일로 가는 희망 열차부터 3D 펜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스티븐 호킹의 루게릭의 사랑’까
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2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마련한 ‘드론 올림픽’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드론을 가지고 운전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도전했다.

도전이 끝나는 순간 아이들은 결과를 떠나 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새로운 세상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
에게 기쁨과 자신감이라는 큰 선물이었다.



기억장애 수호천사

치매 노인 6,000명에 배회감지기 보급
수색 시간 평균 11.8시간에서 1시간으로

최근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66만 1,707명으
로 치매 유병률이 9.8%로 나타났다. 치매로 진행
할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 경도 인지장애 환자
는 152만 1,83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22.4%를

차지했다. 노인의 10명 중 3명은 경도 인지장애 환자라는 결과인 셈이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되던 치매라는
질환이 우리 가족 혹은 이웃의 삶과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결과였다.

치매라는 질환이 두려운 것은 무엇보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집을 찾지 못해
배회하다 실종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기 일쑤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치매 노인 실종신
고 접수 건수는 2013년 7,983건에서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
가했다. 특히 2017년에는 1만 306건을 기록해 1만 건을 돌파했다.

이러한 치매 노인의 증가와 실종 위험성을 줄여주는 기술이 바로 배회감지기다.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의 자발
적인 참여로 마련한 기금 6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경찰
청과 함께 치매 노인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배회감지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GPS 기능 개선한 웨어러블 4,000명에 추가 보급 계획

2017년 9월 치매 노인 6,000명에게 기억장애수호천사 ‘행복GPS’로 불리는 손목 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배회감
지기를 보급했다. 경찰청에 등록된 실종 이력이 있는 치매 노인 중 희망자에게 배회감지기를 제공했다.

배회감지기 보급의 성과는 실로 놀라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 노인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8시간
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이후 평균 1시간으로 대폭 경감된 것. 실제로 지난해 9월 충남 보령에서는 상습적으로 실
종되던 치매 노인을 배회감지기 앱을 통해 수색 10분 만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부산 동부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의 경우 35분 만에 산악지역에서 발견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1월 광주
광산에서 발생했던 치매 노인의 실종 역시 배회감지기가 없었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였다. 치매 노인이
기차로 이동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변화했던 것. 위치 추적을 통해 철도경찰과 협업해서 실종신고 320분 만
에 노인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다.

배회감지기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치매 노인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세이프존을 이탈할 경
우 알림을 제공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실적으로 6월에는 SK
하이닉스의 진두지휘로 SK텔레콤과 협력사 솔루션, 클루버가 협력해 개발한 소형화 웨어러블 배회감지기를 경
찰청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보급할 계획이다. 4,000명에게 보급될 감지기는 기존 제품보다 GPS 기능을 개
선해 위치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

다문화가정 엄마들 낮엔 일하고 밤엔 '열공'

외국인 300만 명 시대. 다문화가정에서만 매년 우리나라 신생아의 5%가 태어난다. 이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다. 엄마들은 간단한 숙제조차 지도할 수 없고 담임교사들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 아이들은 방치되기 일쑤다.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교육해 학습지도 능력을 키우는 다문화엄마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자녀들 학습지도 능력 키워주는 오픈 학교 생겨

11년 전 베트남에서 전남 나주로 시집온 세 아이 엄마 보티미니엔(31) 씨는 지금 열공 중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 정민(가명·11)이와 7세 정희(가명), 4세 정우(가명) 삼 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녀는 슈퍼우먼이다. 낮에는 농사일과 축사 관리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엔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모시니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교육에 손을 놓게 되었다. 과제에 대해 물어보는 아이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으니 그녀 또한 답답했다. 고학년으로 진급을 하면서 아이의 성적은 더 떨어지고 엄마와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보티미니엔 씨의 선택은 포기가 아닌 공부였다. 다문화엄마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린 눈을 치켜뜨며 매일같이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교육시키는 다문화엄마학교 학생이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 등 7과목을 일주일에 9시간씩 들어야 한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오프라인 수업까지 참가해 평가도 받아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거나 모임에 2번 결석하면 퇴학이다.

그녀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초등학교 자녀의 공부를 직접 챙겨주는 것이다. 교육열 높은 한국의 어느 엄마와 마음은 똑같

지만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오는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업 듣지 않거나 모임 두 번 결석하면 퇴학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한마음교육봉사단의 다문화엄마학교는 보티미니엔 씨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이 자녀들의 학습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다.

다문화엄마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진 한마음교육봉사단 팀장은 “엄마의 가정학습 지도력 부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며 “초등학교 자녀의 가정학습을 담당하고 중·고등학생 자녀교육을 챙길 수 있는 엄마를 양성하기 위해 ‘다문화엄마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2015년 처음 시작한 다문화엄마학교는 대전에서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총 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전원 초등검정고시에 응시해 95%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장성군에 농촌 지역 최초로 다문화엄마학교를 개설해 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3기생 10명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나주시에 다문화엄마학교를 개설해 올해부터 다문화엄마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초등검정고시 합격률 95%... “엄마가 자랑스럽대요”

보티미니엔 씨는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진행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매주 3단계에 걸친 온·오프라인 평가까지 성실히 수행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 초등검정고시를 치르고 합격 소식을 전해 들은 보티미니엔 씨는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기뻐했다.

초등학교 과정을 이해하게 된 그녀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지도에 자신감이 생겼다. 첫째 정민이를 앉혀 놓고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다 보니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다. ‘농사일 바쁘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고 타박하던 남편도 그녀의 노력에 감동받아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둘째 정희의 한글 공부도 직접 챙긴다는 보티미니엔 씨는 “아이에게 수학·한글을 가르치고 나서 성적이 점점 오르는 걸 보니 어렵게 공부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화명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함께 학습을 하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했다.🍀



“자녀들 미래 위해 밤잠 설쳐가며 공부”

박화명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다문화엄마학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들의 학습지도 능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낮아졌던 다문화엄마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까다로운 입학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데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공부합니다. 한 가지 바람은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문화엄마학교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일터_프라지움

글 홍정기 사진 한준호



소외받는 이웃 없게 기부로 사랑탑 세우다

우리 사회에서 건설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좋지 못하다. 언론에 이들은 늘 부조리가 횡행하는 곳으로 그려지기 때문. 그러나 천안에 소재한 프라지움은 지역에서 기부천사로 불릴 정도로 각종 나눔활동에 열정적이다. 거기에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외받는 이웃이 없어야 한다는 박기완 대표의 확고한 믿음이 있다.

대표·전무, 아너 가입... 전 직원 십시일반 동참

2007년 설립한 '프라지움(PRAZIUM)'은 충남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중견 건설업체다. 고객 만족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라는 '5대 경영 원칙' 아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결과 천안 지역에만 10개가 넘는 고품격 도시형 아파트 단지를 선보이는 등 승승장구 중이다.

박기완 프라지움 대표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기부천사'로 불릴 정도로 나눔에 적극적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7,4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후원하고 있고 아너 소사이터 회원이기도 한 박 대표는 기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기완 프라지움 대표

PROUD STYLE PRAZIUM

도시형 아파트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만드는 프라지움은 프라이드(Pride)와 우리말 지움(짓다)을 결합해 만든 회사명이다. 천안 지역에서만 프라지움 1차를 시작으로 10차가 넘는 시공 실적을 지닌 회사는 집을 주거 공간을 뛰어넘어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다. 창립 10년을 넘기면서 프라지움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우뚝 섰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어부와 건축을 하는 제가 무슨 상관 이 있겠느냐 싶지만, 사실 어부가 시간과 공을 들여 고기를 잡지 않으면 저는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없어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농부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부와 농부와 우리 도시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생선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하는 게 저는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의 적극적인 기부 의지는 전 직원으로 전파됐다. 광미경 전무이사가 한 발 늦게 아너 회원이 됐고,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에는 전 직원이 십시일반 매달 기부에 동참하면서 프라지움은 '착한일터'가 됐다.

박기완 대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 느껴”

“기부를 해야겠다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을 짓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요. 먼지가 나고, 소음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기간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죠. 순기능이 있으면 이런 역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참고 인내해 주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했죠. 그래서 먼저 천안시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어려운 이웃을 하나 둘 돕다 우연찮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게 된 박 대표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단순히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자고 시작한 것이 되려 박 대표 본인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기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저 스스로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부심을 주죠. 이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기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직원들이 참으로 대견하다고 했다. 넉넉하지 않은 월급임에도 자발적으로 나서 급여 일부를 내놓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다. 덧붙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했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건강한 사회

인터뷰 자리에 동석한 광미경 전무는 “오래전부터 대표님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직원들이 기념할 만한 일을 찾게 됐죠. 생각한 게 바로 기부였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조금씩 모으면 좋은 곳에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완 대표는 건강한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회사도 가정도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부를 통해 자신과 회사가 투명하고 정직해진다고 전한다. 탈세 등 탈법으로 축적한 돈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끝으로 박 대표는 기부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직간접으로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요. 일상이 평온한 저 같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면 소외된 이웃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같이 나누는 사회일수록 큰 발전을 이룹니다. 나누는 문화가 정착돼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듭니다.”

빨간 꽃, 하얀 꽃 천만 송이 연꽃의 바다로 '풍덩'

충남 부여는 백제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불교문화의 절정을 볼 수 있는 도시다.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재가 있고 부여 전체가 문화유산이다. 여름을 알리는 연꽃이 끝없이 펼쳐지고 금강이 유유히 흐르는 부여는 이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 문화와 옛이야기가 잔잔히 흐르는 부여에서 잊지 못할 여름을 보내러 떠나보자.



위 백마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자 수북정
아래 우리나라 최초 인공 연못인 공남지는
연꽃이 피는 여름이 가장 아름답다.

1,000년도 넘는 연꽃의 바다 공남지

공남지는 여름이 절정이다. 40여 만㎡의 연지에 홍백연, 수련 등 60여 종, 천만 송이 연꽃이 만개한다. 연꽃은 해수욕장 개장 일정 못지않게 여름을 상징하는 꽃이다. 연꽃이 피면 여름이 시작되고 꽃이 질 때쯤엔 계절의 끝자락에 왔음이 느껴진다. 송나라 유학자 주돈이 군자로 칭한 연꽃은, 탁한 연못 위에서도 꽃꽂이 고개를 쪽 뺀 어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발길 닿는 곳마다 저마다 모양도 색도 다른 연꽃이 피어 있어 더위도 잊고 연못 사이사이를 걷게 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연지는 마치 녹색의 바다 같다.

공남지는 백제 시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이다. 《삼국사기》에 “백제 무왕 35년(634) 궁의 남쪽에 못을 파 20여 리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채우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못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方丈仙山)을 상징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현재 1만 평 규모의 연못은 1965년에 복원했다. 공남지에서 뱃놀이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으니 지금보다 더 큰 규모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만큼 백제의 정원 조경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공남지의 중심은 연못 한가운데 떠 있는 포룡정이다. 포룡정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1971년에 만들어졌다. 포룡정 안에는 선화공주 설화와 관련한 시가 걸려 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사랑한 백제의 왕자 서동이 서동요를 퍼뜨려 선화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서동이 무왕이 된 후, 고향을 그리워하는 선화공주를 위해 지은 연못이 공남지라 전해진다.

공남지에선 매해 여름 연꽃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세계를 품은 공남지, 밤에도 빛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연꽃이 국화인 베트남, 인도, 이집트 등 7개국의 연꽃 정원을 볼 수 있고, 심야엔 포룡정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무빙 쇼도 펼쳐진다. 평소에는 체험할 수 없는 연지 카누 체험도 운영되니 여행일정에 참고하자.

백제 멸망의 한이 서린 백마강

백마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즈넉한 정자, 수북정.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는 수북정에 앉으면 왼편으론 백제교가, 오른편으론 부여대교가 보이고, 바로 아래 규암 나루터가 눈에 들어온다. 수북정은 부여 팔경 중 하나로, 광해군 때 양주 목사 김흥국이 건립하고 자신의 호를 따 수북정이라 이름 지었다. 수북정에서 바라본 백마강 건너편 구드래 일원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 노란 들판처럼 보인다.

수북정 바로 곁엔 백제 의자왕의 쉼터였던 자온대가 있다. 의자왕이 왕흥사로 예불드리러 가다 잠시 쉴 때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져 자온대라 불린다. 규암 나루터는 과거부터 번화한 나루터로 경제, 행정,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조용한 유람선 선착장이지만 백마강변을 따라 걸다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부여의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규암마을 자온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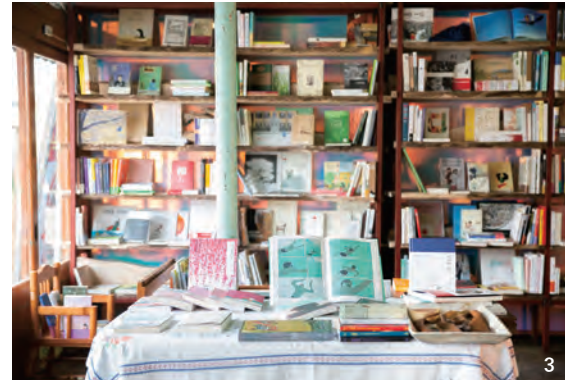
교통의 중심이었던 규암나루 옆 규암 옛바위 마을은 과거 부여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 그러다 1968년 백제교가 준공되며 육상교통이 발달해 마을도 쇠락의 길을 걸었다. 시간이 멈춘 규암면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오일장 앞에서 국밥을 팔던 낡은 주막이 천연염색을 하는 작가의 작업실이 됐다. '임씨네 담배가게'는 문화를 파는 책방으로, '금강사진관'도 특별한 사진관으로 변신 중이다. 담뱃가게를 운치 있는 책방으로 변신시킨 '세간'은 옛집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마루와 마당이 있다. 바람이 드나드는 마루에서 푹신한 쿠션에 비스듬히 앉아 책을 읽다 까무룩 잠들 것만 같은 책방.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테이도 준비 중이다. 책방 세간 바로 옆엔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신 공예 작가들의 물건을 파는 상점도 있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 있는 규암마을은 차근차근 변화하고 있다. 전통찻집, 목공방, 숙박시설 등이 차례로 문을 열면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부여를 굽어보는 400년 된 사랑나무

부여와 강경을 잇는 임천면 선홍산에 백제 동성왕이 사비성을 수호하기 위해 축성한 가림성이 있다. 낮은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숲길을 차로 지나 5분만 오르면 가림성에 닿는다. 둘레 1,500m, 높이 3~4m의 성벽이 숲속에 자리한다. 가림성보다도 선홍산 사랑나무라 불리는 느티나무의 자태가 여행객을 압도한다. 무려 22m의 키 크고 듬직한 400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 풍경을 굽어보며 묵묵히 서 있다. 느티나무 옆에 서면 저 멀리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논산, 강경, 익산, 서천이 한눈에 보여 왜 이곳에 가림성을 축조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두 팔을 다 펼쳐 감싸 안아도 성인 너덧 명은 있어야 한 바퀴를 두를 수 있을 커다란 나무와 단단한 뿌리가 나무의 세월을 말해준다. 서해에서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방어 거점이었고, 패망 후엔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이기도 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백제의 옛 모습부터 현재를 지켜왔을 나무는 여전히 고요하고 아늑하게 제 곁을 내준다. 길게 팔을 뻗어 약속하듯 내민 굵은 가지에 가만히 손을 얹는다. 단단하고 듬직한 이의 품에 안긴 듯하다. 나무 둔치에 앉아 가만히 금강과 마을을 바라보며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를 듣고 있기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난다. 이곳은 매년 새해 해돋이 행사가 열리고, 일몰을 감상하기도 좋은 곳이라 해 질 녘이 되면 사진작가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멋진 풍경 덕에 '서동요' '대왕세종' '일지매' '대풍수' 등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맛과 기부로 소문난 착한가게 공남추어탕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얼큰한 추어탕과 매콤한 주꾸미 볶음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남추어탕이 이번 착한가게의 주인공이다. 벌써 부여에선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깔끔하고 맛깔난 반찬과 친절함 주인 부부가 정겹게 맞이해 줘 편안한 분위기가 흐른다.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며 씩스럽게 웃는 주인 부부. 반찬도 다 직접 만들고 주꾸미도 주문 즉시 직접 직화로 구워 불향이 진하고 부드럽다. 커다란 그릇에 주꾸미를 양념과 함께 듬뿍 넣고, 나물과 채소를 넣고 쓱쓱 비비면 금세 밥 한 그릇이 딱딱 비워진다. 국물이 진한 추어탕도 들깨가루와 산초가루를 취향대로 넣으면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1 교통의 중심지였던 규암나루 옆 옛바위 마을. 이곳은 시간이 멈추어 있다. 옛 옛바위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규암문화관
2 공남지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포룡정
3 담뱃가게를 운치 있는 책방으로 변신시킨 '세간'
4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는 공남추어탕 윤정숙(왼쪽)·박문수 부부
5 공남지 근처에서 맛볼 수 있는 보양식 공남추어탕
6 부여의 가림성에 가면 키가 22m나 되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사랑나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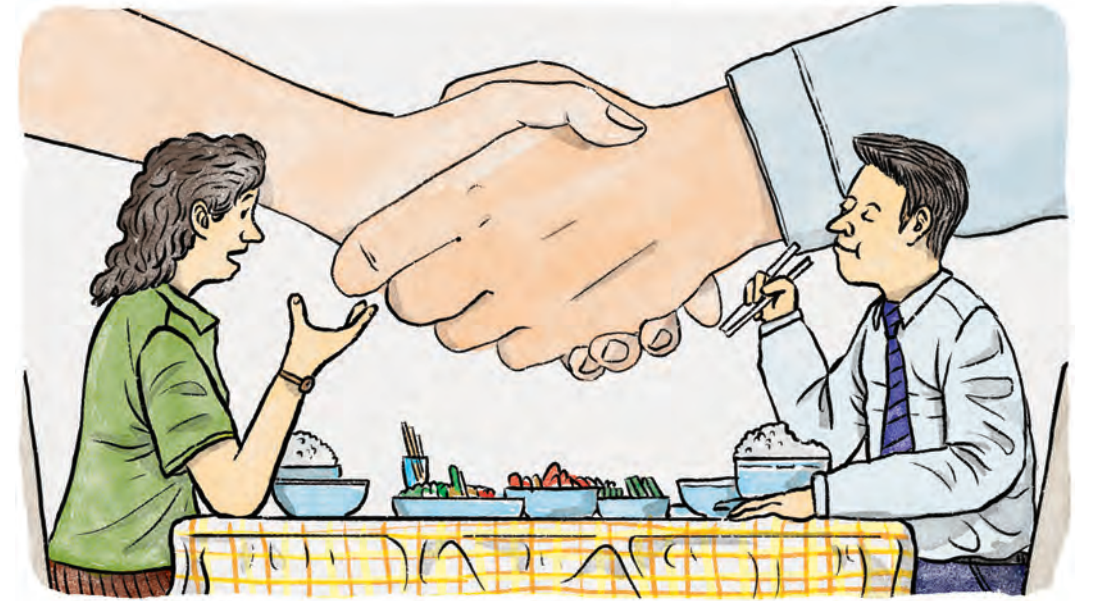


여행정보

- 공남지**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공남로 52
연락처 041-830-2330
입장료 무료
시간 00:00~24:00
- 수복정**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47-2
연락처 041-830-2330
입장료 무료
시간 00:00~24:00
- 책방 '세간'**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82
운영시간 11:00~19:00 (월요일 휴무)
- 가림성 사랑나무**
주소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
- 공남추어탕**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공남로 8
연락처 041-837-2367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하지” 음식을 나눠 먹으면 왜 금세 친해질까?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하면 친해지기 마련이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언제 식사 한번 같이하자’고 하면 호감의 표시가 된다.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다고 왜 서로 친해질까? 같이 시간을, 음식을 나눠서? 여러 측면에서 답을 구해보자.



힐러리 “음식은 가장 오래된 외교의 수단”

지금은 은퇴했지만 예전에 마당발로 소문난 장관이 있었다. 얼마나 인맥이 넓은지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만 거의 1만 명에 이를 정도란 말이 있었고, 정부 관리는 물론 정계, 재계 심지어 연예계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

이 장관, 자신이 마당발이 된 비결 중 하나로 식사를 꼽았다. 누가 식사 요청을 하면 물리치는 법이 없었는데 혹시 비서가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면 “왜 사람 사귄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느냐?”며 나무랄 정도였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 하루 여덟 끼까지 먹은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당발이 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인맥 넓히다 자칫 초고도 비만이 되면 어쩔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활동이 왕성하면 에너지 소비가 보통이 아닌 데다 식사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본인은 말하느라 밥 먹을 틈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가 고파 이동 중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하면 친해지기 마련이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언제 식사 한번 같이하자”고 하면 호감의 표시가 되고 연애했 때도 밥 같이 먹으면서 정을

쌓게 되는데 밥 같이 먹는다고 왜 서로 친해질까? 여러 측면에서 답을 구할 수 있겠는데 비즈니스나 정치적 관계라면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국무장관이었던 시절에 했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영부인부터 국무장관, 대통령 후보까지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머물렀던 사람인 만큼 인간사회 소통의 핵심을 파악했기에 이런 명언을 남겼다. “음식은 가장 오래된 외교의 수단이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의미는 적이 아닌 동지의 개념

국무장관 시절, 힐러리의 외교를 흔히 음식외교(Food Diplomacy)라고도 하는데 오찬과 만찬을 비롯해 식사자리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힐러리 본인 역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가장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식사자리에서 이뤄졌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식사를 같이하다 보면 묘하게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까워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힐러리의 회고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근거도 있다. 진화심리학에서 인간의 뇌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무의식중에 식구 내지는 동료로 인식한다고 한다.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食口)라고 부르는데 밥을 같이 먹는다 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적이 아니라 가족 내지는 동료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는 내가 먹을 것을 빼앗아 갈 상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계를 할 대상이어서 웬만하면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한다.

영뚱한 이야기 같지만 고향이라는 한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향이라고 할 때의 마을 향(鄉)자는 음식이 담긴 그릇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하고 있다.

고향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정서적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매일 밥을 같이 먹고 살았던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곳,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자랐던 친구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기에 고향이 반갑고 그리운 것인데, 뒤집어 말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가까워지면 “언제 식사나 같이 한번 하자”고 인사를 하는 것도 밥을 같이 먹음으로써 서로 같은 종족, 혹은 같은 무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내재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초면끼리라도 서로에 대한 호감도 높아져

그렇다고 정말 밥 한번 같이 먹으면 무조건 친해질까? 어차피 친한 사이라면 모를까 초면에 혹은 비즈니스 관계라면 식사 한번으로 친해지기란 간단하지 않은데 식사자리를 통해 친밀도를 높이는 데 테크닉이 필요하다.

심리학에 오찬의 기술(Luncheon Technique)이라는 말이 있다.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면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밥을 함께 먹으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먹는 음식이다. 기대 이상의 음식을 먹으라는 것으로 반드시 값비싼 고급요리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음식을 먹되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먹는 장소다. 조건에 맞는 장소여야 하는데 상대방을 접대할 때 음식이 맛있다고 욕쟁이 할머니 집에 데려가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셋째는 대화다. 음식 맛있고 장소도 그럴듯한 데다 주고받는 대화까지 통하면 호감도가 급상승한다. 식사 함께한다고 무조건 친해지는 것은 아니니 비즈니스를 할 때건, 썸을 탈 때건 여러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

모금 역대 최고치 경신... 개인·단체 쌍끌이 기부 기부 있는 곳에 모금회 직원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멈춘다. 나눔도 마찬가지다.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적재적소에 배분도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산업과 물류 이동의 중심도시 인천은 나눔과 배분이 물류 이동하듯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갔다.

예부터 인천은 해외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한반도의 문물이 해외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지금도 그 역할에 충실하다. 인천항 확장으로 물류량이 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인천을 찾고 있다. 송도신도시와 청라·영종지구 개발 등 도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금도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는 역동적인 도시 인천은 나눔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다.

나눔리더에 시의원 전원 가입 등 개인기부 비율 높아

지난해는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인천의 모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눔리더와 나눔리더스클럽 회원들이 개인과 단체로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연말연시 모금 행사인 희망2018나눔캠페인에 1,000만 원 이상 기부자들이 개인모금액의 70%를 채울 정도로 인천 시민들의 풀뿌리 모금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리더에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의원 34명 전원이 가입해 나눔의 모범을 보였다. 나눔리더 프로그램 시행 이후 동시 가입으로는 최다 인원이다. 이들은 매월 10만 원씩 모아 연간



4,08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여성운전자회도 인천 곳곳을 다니며 나눔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69년 창립되어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여성운전자회는 인천 공동모금회와 2011년 10월 '나눔택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택시 내부에 모금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나눔택시 깃발'을 달고 다니며 인천의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400만 원을 기부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에 타 지역에 비해 개인기부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 이정윤 인천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마음만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기부를 통해 나눔을 전파하고 있다"며 "인천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사람보다 마음이 넉넉하기에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이어 선학동에 두 번째 착한가게 거리 조성

인천 공동모금회는 올해 차이나타운 착한가게 거리 조성 이후 5년 만에 두 번째 착한가게 거리를 지정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25개 업소가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이곳이 착한가게 거리로 지정된 것이다. 이곳이 착한가게 거리로 지정되기까지는 인천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정윤 인천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담당은 "전국

모금회 신입사원들의 현장실습을 선학동으로 나갔는데 2개 업소가 가입을 하게 됐다"며 "이후 직원들이 발품 팔아 업주분들을 찾아다니며 나눔의 가치를 설명하고 상가 번영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인천의 착한가게 가입업소는 총 950개소로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통큰 기부도 이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공헌기금으로 13억 4,000만 원이라는 역대 최고 기부를 통해 사랑의온도를 18.5도 올렸다. 13년째 기부활동을 지속한



스카이72(주)골프앤리조트도 3억 원을, 포스코건설이 4억 원, 대원제약이 2억 2,000만 원, 현대제철도 1억 3,600만 원, (주)선광과 한아통상(주)이 각각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을 통해 모인 성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 연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암,



지난 4월 6일 진행된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착한가게·나눔의 거리 선포식 모습

심장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긴급지원 사업비 5억 원을 마련해 연간 3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수렴해 배분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규진 인천 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담당은 “단순히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분야별로 도출된 인천 지역의 복지이슈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획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노후지원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노후지원 프로그램 진행도

산업역군으로 우리나라의 급속 성장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이기에 이들을 위한 미래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해 신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경계성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도 진행했다. 이규진 담당은 “경계성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으로 인천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소규모 복지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배분 공모사업을 하면 인력과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복지기관에 사업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배분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복지기관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름 111개소 복지기관에 냉방에 필요한 전기료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인천 공동모금회 직원이 직접 배분기관에 찾아가 맞춤형 배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사무처장은 “소규모 기관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회계처리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있다”며 “모금회에 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격월로 복지기관 집합교육을 실시해 배분 공모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 인천 공동모금회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금사업도, 배분사업도 소외된 곳 없이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 공동모금회 직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정윤 인천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기부 찾아 인천 전역 울코트프래싱 ‘팀 인천’의 저력을 믿어보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팀 코리아(Team Korea)라고 부른다. 하나의 팀으로 단합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얻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인천의 대표 나눔 기관으로서 ‘팀 인천’이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다. 이정윤 인천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인천의 나눔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다”며 “인천 시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나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좁혀나가는 것이 ‘팀 인천’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사무처장은 팀 인천의 리더로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조직에는 앞에서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도 필요하지만 팀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무조건 다 그치기보다 직원들의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고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 좋지 않지만 발로 뛰겠다

지난해 인천의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팀으로 힘을 모으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인천 공동모금회는 목표로 했던 모금액수를 넘어 최고액을 경신했다. 이정윤 사무처장은 “인천 시민의 나눔 열정은 소외된 이웃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며 “마음을 모아준 수많은 기부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지만 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역 내 기업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팀 인천’은 저력이 있다. 팀 인천으로 하나 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다. 인천 공동모금회는 섬김의 리더인 이정윤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한다.

모금단체가 비영리 바자회 여는데 세금 내라고? 기부 활성화 위해 뽑아야 할 전봇대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많다. 하지만 개별법안 하나 고치려고 해도 관련 법령을 줄줄이 검토해야 하는 데다 그나마 발의된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결국 기부자들의 관심과 압박이다. 과연, 우리의 기부문화를 발목 잡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

땀질식 법안 여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많아

최근 공익법인들이 한바탕 국세청과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바로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전용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해당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0.5%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시행 9년째지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1만 4,000여 개(종교법인 제외) 공익법인 중 5,973개, 즉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였다.

이 사례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둘러싼 우리의 현주소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수는 3만 3,888개로, 영리법인의 약 5.5% 수준이다(2016년 국세통계). 규모가 작다 보니, 비영리 혹은 공익법인 등 소위 제3섹터 영역은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땀질식 법안이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도 있다.

얼마 전 열린 ‘시민사회단체 연찬회’에서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은 “기부받은 정장을 취업준비생 등 필요한 이들에게 대여해 주는 비영리단체인 ‘열린옷장’의 경우, 정장 대여가 목적사업인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수익으로 보고 계속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모(母)법인이 비영리조직인 단체가 정부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으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비영리단체가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국세청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수익사업”이라고 말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차례에 200만 원 남는 바자회 때문에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비영리단체가 많다”고 했다.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수익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대목이다.

현물기부에 관한 혼란도 있다. A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영리법인 B로부터 장부가액 100원, 시가 500원인 물품을 기부받았다고 하자. 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100원,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은 100원, 상속세법상 출연재산은 보고할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500원으로 기재해야 한다. 세법마다 ‘취득가액’과 ‘기부금가액’ 결정 기준이 달라서 이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기부금품법’, 편법적인 모금행위 불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또한 대표적인 현실괴리형 법안이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모집등록제도는 편법적인 모금행위를 양산한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품법 제2조에는 소속원(회원)으로부터의 후원금은 기부금품법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후원회원 모집’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등록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이미 보편화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경우, 기부금품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금 규정이 없다.

비영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발주 받아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나 연구투자 등에 관대한 반면, 유독 비영리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조차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의 경우 15% 이내로만 운영비를 규제하는 암묵지시가 있다 보니, 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편법의 유혹에 빠지고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관리감독 서류 또한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상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와 상속세법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등은 항목이 한두 가지만 달라, 정부부처끼리 충분히 통합 활용할 수 있다.

공익위원회 설립 법안 국회에 제출... 운영의 묘 살려야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 기부와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진 이후, 비영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가 많아졌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비영리단체가 ‘몰라서 사기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일원화되고 디테일한 행정 서비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비영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호주 국세청 최고 책임자의 말처럼 말이다.

결국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영국의 ‘채리티 커미션(Charity Commission)’처럼 비영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부터 ‘공익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무르익었고, 설립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공익법인을 허가제로 할지, 인가제로 할지, 공익위원회에 포함되는 법인 형태를 어디까지로 할지, 국세청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맺을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익위원회마저 규제의 ‘끝판왕’이 된다면, 비영리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통기타 둘러메고 나눔콘서트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가수 정필옥입니다. 요즘엔 제게 수식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귀촌 통기타 가수라고 부르더군요. 부여가 좋아서 부여로 귀촌을 했으니 그리 불러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나눔콘서트를 하는 귀촌 통기타 가수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여에 있는 궁남지에서 나눔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많은 분이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눔콘서트를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부여로 귀촌을 하니 농촌에 젊은이는 거의 없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뉴스는 접했지만 부여에 와서 직접 눈으로 농촌의 현실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제때 식사는 하시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정착한 부여인데, 내가 가진 재능으로 부여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위문 공연을 다녔어요. 부여 이곳저곳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공연을 해왔는데,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나눔콘서트입니다. 나눔콘서트가 뭐냐고요? 궁금하시면 매주 토요일 부여의 대표적인 관광지 궁남지로 오세요. 가족과 주말 나들이 겸 오시면 콘서트도 구경하며 나눔까지 실천하는 1석 3조의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기타 치고 색소폰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인상 깊어 매주 궁남지에 온다는 팬들도 있어요. 좋은 일 한다면서 박수를 쳐줄 때는 절로 힘이 납니다. 궁남지에 오셨을 때 제가 공연하는 모습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기부함에 여러분의 사랑을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작은 정성들이 점점 쌓이면 어르신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여군 나눔리더 2호입니다. 지난해 정기기부를 약속하고 지난 5월 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공연 수익을 기부한 것이지요. 지난해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지팡이 400개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연하는 동료들과 나눔봉사단을 만들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단원들과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무대에 섭니다.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을 겁니다. 그냥 노래만 한다면 일이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의 재능을 나누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눔콘서트의 의미를 알아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여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

4차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 포럼 비영리기관 투명성·신뢰 주제로 열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4차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 포럼을 지난 6월 21일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나눔지식네트워크는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3개 비영리기관의 연구소가 나눔지식의 교류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발족한 모임으로 매년 공동기획포럼과 분기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주제로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위원회와 정부규제안의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두 번째 시간에는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센터장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춘 가치융합경영연구소 대표와 홍익대학교 배원기 경영대학원 교수, 원혜영 국회의원실의 조근희 비서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배우 박재민, 루게릭 환자 위한 성금 전달

배우 박재민씨가 지난 6월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루게릭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은 박씨는 김연순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만나 '아이스버킷 챌린지' 성금 2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의 기부금은 '승일 희망재단'을 통해 루게릭 환자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해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황기순, 거리모금으로 필리핀에 휠체어 전달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송인 황기순씨는 지난 6월 11일 필리핀 마닐라를 찾아 현지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전달식을 가졌다. 황씨는 2016~2017년 거리모금을 통해 모금한 7,900만 원으로 휠체어 200대를 마련해 이번에 전달했다. 그는 2000년부터 총 2,216대(전동 휠체어 68대 포함/5억 2900만 원)를 지원했다. 황씨는 지난 2000년부터 박상민씨를 비롯한 동료 연예인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며 '사랑더하기' 거리모금 미니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개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대강당에서 '2018년도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약 50여 명의 아너 회원들이 참석해 회원현황 및 사업현황 보고, 아너 클럽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아너 클럽 회장은 안병근 대표가 연임을 했으며 부회장으로 김용주님, 하숙자님, 감사로 심재원님이 선출됐다.



서울 공동모금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유공자 표창

서울 공동모금회는 지난 5월 25일 사랑의열매 대강당에서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유공자 표창식 및 사업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평가회를 개최해 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진행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함께 도봉구, 관악구, 마포구 등 3개 자치구에 서울 공동모금회 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원



강원 공동모금회, 원주시나눔봉사단과 의료봉사·무료급식 진행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는 지난 6월 6일 원주시나눔봉사단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만종 호저면 대명원에서 의료봉사와 무료급식 봉사를 가졌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된 '원주시나눔봉사단 자원봉사'는 원주 대명원 마을 일대 노인세대 100여 가구에 정형외과, 한방, 비뇨기과 등 의료봉사와 노인정 청소 및 집수리, 법률상담, 사회복지사 상담 등 활동을 연계해 진행했다.



2018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강원 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8일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2018년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업 소개와 프로포절 작성법, 신청절차에 대해 교육했다. 강원 공동모금회는 공모 형태인 2018년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고해 지난 6월 15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받았다.

제주



풍력 공유화 기금,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6억 원 전달

취약계층 공유화 기금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에 6억 원 전달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6억 원을 전달했다.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에너지공사(동북리), SK D&D(가시리), 탐라해상풍력(두모·금동리), 김녕풍력발전(김녕리), 한국중부발전(상명) 등이 참여해 취약계층 중 장애인 및 조손수급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치과의사회, 치과치료비 지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 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14일 제주도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 공동모금회는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틀니, 브릿지, 크라운, 의치보철 등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상공회의소, 이웃돕기 성금 6,200만 원 전달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는 지난 6월 4일 화성시에 위치한 리베라 C.C에서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 성금을 모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개 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골프대회를 통해 모인 성금 6,200만 원은 성녀루이제의 집, 화성시자원봉사센터, 둘다섯해누리, 불이원, 한울타리봉사회, 화성아르뎀복지관 등 6개 기관에 전달됐다. 화성상의는 매년 지역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해 이웃돕기 성금을 전하고 있다.



경기북부, 2018 기획사업 설명회 열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회장 이순선)는 지난 6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2층 평화누리홀에서 2018년 기획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사업 및 연합모금 소개, 온라인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올해 진행되는 기획사업은 ▲맞춤형 차량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 ▲복권기금 방학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정원 구공 대표, 천안중학교에 장학금 전달

충남 아너 소사이터티 클럽의 최연소 아너인 이정원 (주)구공 대표가 모교인 천안중학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지난 6월 8일 천안중학교 교장실에서 이정원 (주)구공 대표, 천안중학교(교장 김학준) 교직원 및 천안중학교 학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정원 대표는 “후배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공동모금회, 2018 기획사업 배분금 전달식

충남 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20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기획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갖고 사업수행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배분금은 자유주제 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9,900만 원(18개소), 사회복지중보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5,300만 원(11개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7,600만 원(19개소),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32개소) 등 총 80개소에 5억 6,500만 원이다.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는 북한 어린이 돕기 지원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사)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이사장 최현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해빙무드에, 그간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는 2002년부터 매년 농산물 및 농기자재, 농산물 생산 기술 이전 및 지원 등 약 30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 공동모금회, 여수시에 감사패 전달

전남 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7일 '희망2018나눔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여수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성금 총 9억 2,700만 원을 모금했다. 이는 22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허정 전남 공동모금회 회장은 “앞으로도 연중 진행되는 아너 소사이터티, 착한ilter,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건전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장덕수 우민재단 이사장, 국가유공자 장학금 및 사랑의 연탄 성금 기탁 장덕수 우민재단 이사장은 지난 6월 5일 충북대학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제5회 우민사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에 국가유공자 조손가정 학생 장학금 3,000만 원과 충주 지역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5만 장(3,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국가유공자 조손가정 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사랑의 연탄은 충주 지역 내 저소득층 250가구에 각 200장씩 전달할 예정이다.



진천성모병원, '착한ilter'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진천성모병원(이사장 조세원)은 지난 6월 15일 도내 의료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충북 공동모금회와 '착한ilter'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진천성모병원은 지난 2013년도부터 진천군 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설명절 물품지원 등 꾸준히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자 착한ilter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연합모금 협약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와 '2018년 연합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공동모금회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 지역사회 복지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금 및 배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수 전북 공동모금회 회장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착한가게 1,500호 탄생

전북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기부캠페인 착한가게에 1,500호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전주 KBS에 위치한 '카페온에어'로 전북 지역에서 착한가게 캠페인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1,500번째 업소가 탄생한 것이다. 사은혜 카페온에어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며 받아온 사랑을 어떤 식으로 갚을지 고민하다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 경상대병원, 개원 2주년 기념 성금 전달

창원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박형빈)은 지난 6월 7일 개원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개원식에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에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의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경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개원 기념행사가 직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BNK바람통장 판매 수익금 1억 원 기부

BNK경남은행은 BNK바람통장 판매 수익금 중 1억 원을 경남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BNK경남은행이 기탁한 판매 수익금은 지역 소외계층 구호기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황윤철 은행장은 “BNK바람통장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도 판매 수익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익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 화재피해주민 구호 업무협약 체결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6월 7일 광주광역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화재피해주민 구호를 위한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협약기관은 협업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화재피해를 입은 돌봄이웃의 조기 생활안정 지원, 화재이재민 생필품 및 PTSD 심리상담 지원, 재해구호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 유지 및 상호교류 등 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



김찬수·김미희 부부, 아이 돌잔치 축의금 이웃사랑 성금 기부

김찬수(35·오비맥주광주공장 설비보전 담당)·김미희(31) 부부는 아들 김동하 군의 돌잔치 축의금을 광주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첫아이의 생일선물을 ‘나눔’으로 정했다는 부부는 “1년간 건강히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 많은 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결혼식을 올리면서 받은 축의금 218만 원을 기부한 ‘나눔 결혼’ 광주 2호 커플이기도 하다.



대건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친선 골프대회서 성금 기탁

대건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지난 5월 30일 대구컨트리클럽에서 열린 '2018 회원사 대표자 친선 골프대회' 행사에서 성금 1,000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대건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소속 회원사 대표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다. 대건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2013년부터 이웃돕기 성금, 골프대회 성금 및 연탄을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 1,415만 원을 기부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통 큰 기부금 1억 5,000여만 원 쾌척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종록)는 지난 6월 4일 향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온정 넘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성금 1억 5,000여만 원을 경북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경북 공동모금회는 경북개발공사의 기부 의사에 따라 성금을 경북도내 저소득계층 청소년 장학금으로 1억 원, 영유아 보육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혼모자시설 7개소에 2,1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4개 시설아동에 선물 전달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는 지난 6월 14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4곳의 아동시설을 방문해 1,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눔으로 행복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필요하고 갖고 싶은 물건들을 파악하여 전달했다. 한편 50여 명의 임직원들은 선물 전달 외 아동시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구 동구재향군인회, 착한단체 가입

대구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회장 김광일)가 착한단체에 가입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는 지난 6월 14일 동구재향군인회 회관에서 김광일 동구재향군인회 회장, 황서미 여성회장, 구본준 사무국장, 이희정 대구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동구재향군인회 회원 23명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기적인 나눔 실천을 결심하며 ‘착한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대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에 1억 원 지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지난 6월 12일 대전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성금 전달식 및 수행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23개 기관에는 총 1억여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기관별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전달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기획능력 함양과 배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랑의 장학금 전달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이상훈, ETRI)은 지난 5월 30일 사랑의 장학금 1억 4,400만 원을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전달했다. 올해로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ETRI 사랑의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중·고교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ETRI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각 구별 총 60명이 선발되었으며, 매월 20만 원씩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세종



소외계층 이불 빼는 '소정 행복나눔 빨래방' 문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지난 6월 19일 소정면주민센터에서 '소정 행복나눔 빨래방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빨래방은 KCC 세종공장에서 지원한 5,000만 원 중 3,500여만 원을 들여 마련됐다. 빨래방에는 업소용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설치되어 소외계층의 이불과 옷 세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빨래방 오픈은 민관이 협력해 결실을 맺은 첫 특화사업이다.



김봉주 청소년진흥재단 지부장, 제자 위해 4년 동안 장학금 기탁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강사가 제자들을 위해 수년 동안 장학금을 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충청대 사회복지과에서 강의하는 김봉주(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장은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제자들을 위해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5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4년 동안 총 300여만 원을 기부했다.

부산



한전KPS 고리1·고리2사업소, 착한일터 가입

한전KPS(주) 고리1사업처와 고리2사업소는 지난 5월 24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현재 한전KPS(주) 고리1사업처와 고리2사업소는 직원들의 나눔을 통해 부산시 기장군 관내 저소득가정에 장학금 및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착한일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부산 공동모금회,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지난 5월 24일 동구국민체육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규모가 작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그룹홈,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복지사업 진행과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총 1억 5,000만 원 규모, 기관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울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청소년 장학금·장애인복지시설에 성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5월 3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지역 청소년 장학금·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청소년 장학금으로 분기별 총 4회 지원되며, 장애인복지시설인 밀알주간보호센터,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사랑올타리 등 3곳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 복지단체 10곳에 '행복드림카' 전달

현대자동차 노사가 14년째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을 이어가며 소외계층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5월 29일 울산공장에서 스타렉스 8대, 아이오닉하이브리드 2대 등 '행복드림카' 10대(2억 6,000만 원 상당)를 울산 지역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관련 10곳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2005년부터 울산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차량을 기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70대를 전달했다.

인천



이규원 치과원장,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원금 전달

이규원 치과원장은 지난 6월 4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학생6·25 참전관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를 통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인천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이규원 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위해 후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UN군 참전을 결정해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인천연수지사, 이웃사랑 성금 1,400만 원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인천연수지사(센터장 채창호)는 지난 6월 7일 이웃사랑 성금 1,400만 원을 인천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연수구 지역 내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100여 명 하복비 지원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20가구의 홈-클린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인천연수지사는 2008년부터 매년 인천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억 8,200여만 원을 기탁했다.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전북 48호

김상속 (유)대송 대표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이웃을 더 생각하는 나눔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의 사랑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

대전 65호

박성배 일산종합건설 대표



“조용히 나눔을 전하려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됐지만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 178호

권용준 프로종합관리(주) 회장



“해피나라요양원 10주년을 기념해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전하고자 아너에 가입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경기 179호

김무연 (주)평화 대표(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광주 80호

조백운 승덕종합건설(주)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더 많은 나눔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좋은 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인천 121호

윤해중 삼마종합건설(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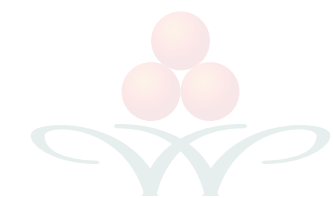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환원하고 싶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게 됐다. 더 많은 기부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회원이 되고 싶다.”

부산 144호

최철관 고려노벨화학 회장



“이전 시대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 나눔의 문화로 이룩해 나갑시다.”



인천 공동모금회
김태화 T+중부 대표

대전 공동모금회
이수형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p>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p>	<p>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2천원)</p>	<p>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p>	<p>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p>
<p>계좌기부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p>		<p>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p>	<p>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p>

독자페이지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6월호 '탄소포인
트제' 기사를 보
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를 절
약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부도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눔을 실천하면 기쁨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박지영 · 부산시 북구

'눔마주의의 행복한 기부' 기사를 감동 깊게 읽었
습니다. 주인공의 선행을 통해 올바른 나눔, 가치
있는 기부란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
니다. 나눔이란 부유한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누
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
운 권리입니다.

이춘일 · 경기도 의정부시

'LH 든든한 보
금자리'를 읽고
LH에서 소외계
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회공헌활동
을 하고 있음에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특특히 봉사
활동을 펼치는 모습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도성열 · 대구시 달서구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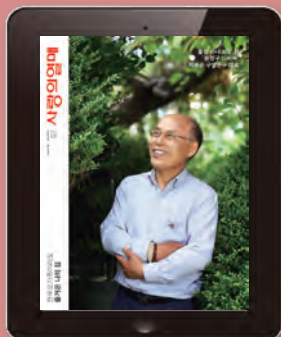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
(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
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
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